

1용평등으로 가는 길② 자동자업계

남성 우선주의에서 능력 우선주의로

영업사원 공채, 과 동등한 급여 조건

정은(27) 씨는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이다. 고등학교를 하고 신생 호텔에서 프론트 업무를 2년여 넘게 하면서 월급에도 창립멤버로서 자부심과 일의 보람으로 야근도 마다 하지 않던 것이었지만 난데없이 호텔과 인척지간이라는 신참 직원이 자신의 바로 직속으로 임명되면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겠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경험 끝에 박양이 선 것은 여자기기 때문에, 한 뒷배경이 없어서, 학력 모자라서 등의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는 최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 바로 프로 세일즈 우먼이 되는 것이다. 남성들의 독점시장인 자동차 영업직에 진출한 1년 여 만에 박양은 한달에 4~5대의 차를 파는 전수가 됐다.

대우자동차판매(주)에서는 양과 같은 여성영업사원의 수가 50여명에 이른다. 지난 6월 자동차회사로는 처음으로 고졸 이상 대졸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업사원을 공채했다. 오랫동안 자동차 영업직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에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사내 여성 자동차 영업직에 진출한 선구자는 주부사원들, 그러나 보통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식 사원과



▲ 대우 자동차판매(주)에는 공채로 입사한 50여명의 여성영업사원들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조건이 다르다.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주부사원들의 경우 하루 6시간, 토요일 무근을 조건으로 급여는 정규직의 62.5% 수준에 불과하다.

대우측에서는 지난해 첫 공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4회 여성영업직 사원을 공채했다.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신용욱 대리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쉽게 지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직율이 높아서 잦은 공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한 여성들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영업사원을 뽑을 생각"이라고 전한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관리직의 급여체제에 있어서도 동등한 조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졸 남여는 공히 4급 1호봉이고 남성의 경우 군경력에 따라 군경력 1년 미만이면 4급 2호봉 2년 미만 4급 3호봉, 2년 이상은 4급 4호봉으로 시작한다.

쌍용자동차에서는 88년 남녀직원의 호봉체제를 하나로 통합한 후 남녀간의 호봉차이

를 줄이기 위해 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고졸여직원은 4급1호봉으로, 남직원은 15호봉으로 시작하고 대졸 여직원은 3급 10호봉으로 남직원은 3급 16호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호봉차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

호봉격차 등 줄이기 위해 <직무급제도> 도입

쌍용자동차 인력관리부의 한성희 대리는 "앞으로는 직무에 따른 급여체제인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리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사실 이미 특정전문 분야에서는 차별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제조업이나 생산직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된 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밝힌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지시를 받은 후 호봉조정 등 취업

규칙 상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전체 직원에 비해 여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한다.

각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이 주요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에서의 개정작업은 자칫 여성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이끌거나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이 간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여직원회인 아카시아회 유미숙 회장(25, 외자부)은 "회사에서 어떤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직원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 회사내의 여성들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는 창구인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좀더 활발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황금희 기자>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임원 인준식 가져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회장 박영혜)은 지난 16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역대회장단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인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대 연맹회장인 김현자(전 국회의원) 씨를 비롯 정광모, 김옥렬, 이계순

(전 정무2장관), 송화섭, 백정란 씨 등 역대회장이 모두 참석하고 청주, 마산, 대구, 포항, 광주를 비롯한 지방회원과 제21차 나고야 세계대회 참석회원들이 참석해 새 임원진의 출발을 격려하는 뜻깊은 임원인준식을 마쳤다.